

# SK이노, 美 SMR 건설 수혜 글로벌 원전사업 힘 받는다

테라파워, 원자력 발전소 건설 착수 SK그룹, 대규모 투자 등 지속 협력 SMR 기반 전력 생태계 구축 계획

SK이노베이션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투자한 미국 차세대 소형모듈 원전(SMR) 기업 테라파워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상업용 첨단 원자력 발전소 건설 승인을 받았다. 이번 승인을 계기로 SK이노베이션의 글로벌 SMR 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일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따르면 NRC가 신규 상업용 원전 건설을 허가한 것은 10년 만이며 SMR과 같은 첨단 원전 건설이 승인된 것은 미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승인으로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에 세계 최초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에 착수하고 2030년 실증로 가동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 승인은 테라파워가 보유한 차세대 SMR 기술의 안전성과 기술적 완성도가 미국 규제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

정받았다는 의미로, 향후 상업화 일정과 글로벌 사업 확대에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2008년 설립한 차세대 원전 기업으로 액체 나트륨 냉각 기술을 적용한 SMR을 개발하고 있다. 끓는점이 약 880도에 달하는 액체 나트륨 냉각재는 열 흡수 능력이 뛰어나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도 기존 대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테라파워의 SMR 기술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는 '부하추종 운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SK(주)와 SK이노베이션은 2022년 8월 공동으로 테라파워에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2대 주주에 올랐다. 이후 SMR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소재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 역량과 한수원이 보유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을 결합해 SMR

기반 전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K그룹 역시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SMR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주최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 2026' 환영사에서 "SK는 AI 데이터센터와 발전소를 함께 구축하는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SMR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최 회장이 서울에서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과 만나 SMR 등 에너지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 바 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현대차-기아 AVP본부 박민우 사장(맨앞 가운데)이 타운홀 미팅에서 구성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 박민우 "현대차그룹, 모빌리티 선도기업 혁신"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타운홀 미팅… 비전·전략 제시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박민우 사장이 5일 AVP본부 연구 거점인 판교 테크원에서 AVP본부 임직원 150여명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앞으로 다같이 이뤄낼 혁신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비전 & 디렉션'을 주제로 열린 이번 타운홀 미팅은 박민우 사장이 신임 AVP본부장으로서 비전과 전략 방향성을 제시하고, 임직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였다.

박민우 사장은 "진정한 모빌리티 혁신은 확장 가능한 하드웨어와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완전히 유기적으로 융합될 때 이룰 수 있다"며 현대차그룹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 제

조 경쟁력과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결합하기 위한 조직의 비전을 공유했다.

AVP본부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실제 양산 차량에 오차 없이 적용하는 '실행(Execution)'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특히 ▲ 전문성 ▲ 집요함 ▲ 민첩한 실행을 핵심 실천 과제로 꼽았다.

이날 박민우 사장은 '원팀(One Team)'으로서의 협업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충돌과 이견이 발생하겠지만 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 충돌은 가장 완벽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긍정적인 갈등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타운홀 미팅을 마무리하며 박민우 사장은 "현대차그룹이 기술과 사람을 조화롭게 하는 차세대 지능형 모빌리티 선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 ysw@

# "LG 사운드 스위트, 극장 수준 입체음향 제공"

## LG전자 신제품 설명회

콘텐츠·공간에 맞춰 음향 자동조정 "새로운 프리미엄 오디오 경험 제공"

최근 글로벌 컨슈머 오디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형 프리미엄 홈 오디오 시스템을 공개하고 음향 시장 공략에 나섰다.

LG전자가 AI 기술을 기반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극장과 같은 음향을 경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 홈 오디오 시스템 'LG 사운드 스위트'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는 출시에 맞춰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LG 사운드 스위트의 차원이 다른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는 신제품 설명회를 진행했다.

LG 사운드 스위트는 국내 최초 돌비 레버토리스의 첨단 음향 기술인 '돌비 애트모스 플렉스커넥트'가 탑재됐다. 해당 기술은 스피커를 자유롭게 배



(오른쪽부터) LG전자 박찬후 오디오개발실장, 돌비 이태지역 마케팅총괄 아심 마서 부사장이 5일 서울 중구 엠베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린 'LG 사운드 스위트' 설명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LG전자

치해도 시스템이 스피커의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해 공간에 맞춘 입체 음향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그간 집에서 음향을 구현할 경우 지정된 위치에 배치해 연결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시켰다.

사운드바는 AI가 사용자 맞춤형으로 조절한다. 2026년형 LG 올레드 TV와 동일한 '3세대 알파11 AI 프로세서'가 탑재됐다. 이를 통해 AI가 음성·음악·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효과음을 구분해 각각의 소리를 또렷하게 분리하고 콘텐츠에 맞춰 음향을 자동 조정한다. 최첨단 AI 프로세서는 NPU 기반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오디오 신호 처리 기능 'AI 사운드 프로 플러스'(AI SoundPro+)를 구현한다.

LG 사운드 스위트는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도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운드바(H7), 서라운드 스피커(M5·M7), 서브우퍼(W7) 등으로 구성되며 취향에 맞춰 조합을 달리할 수 있다.

사운드바 중심 28개 조합, 사운드바 없이 LG TV 중심 22개 조합이 가능해 총 50가지 구성을 지원한다.

박찬후 LG전자 오디오개발실장은 "프리미엄 TV 시장이 확대되면서 기존 사운드바만으로는 공간 음향 경험을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웠다"며 "TV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프리미엄 오디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LG 사운드 스위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 한화시스템, 국방반도체 기술 국산화 속도

서울대·성균관대 R&D 센터 설립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시스템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반도체 기술의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국내 주요 대학과 협력에 나선다.

한화시스템은 서울대학교 및 성균관대학교와 각각 국방·우주 반도체 설계 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R&D)센터 설립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동연구센터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와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정보통신대학 내에 조성된다.

한화시스템과 서울대는 오는 2031년까지 통신용 고주파수반도체 설계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해당 반도체는 통신위성, 이동형 단말기, 무인기 등에 적용되는 핵심 소자로 미래 전장에서 육·해·공·우주영역을 연결하는 초고속·저지연·고성능 군 통신 구현

성균관대학교와는 레이더용 고출력·고효율·광대역 국산 반도체 개발에 나선다. 해당 반도체는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와 전투기, 관측위성 등에 적용되는 레이더 안테나의 핵심 소자로 전파 생성과 수신 신호 증폭을 통해 표적 탐색 및 추적 기능을 수행한다. 천공-II와 L-SAM에 적용되는 다기능레이더(MFR)를 비롯해 전투기용 AESA 레이더, 관측위성의 SAR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한화시스템은 각 대학과 공동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핵심 기술 선형 연구부터 기술 확보, 부품 제품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학 인적 교류 확대와 우수 인력 채용 등 중장기 협력도 함께 진행한다.

/원관희 기자

## LG엔솔, 황 활용 고용량 배터리 구현

고체 전해질 적용… 안정적 성능 확인

LG에너지솔루션이 양극 소재로 '황(Sulfur)'을 활용한 고용량 배터리를 전고체 기술을 통해 실제로 구현하며 차세대 고용량 배터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고체 배터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시카고대학교 셸리 멩(Shirley Meng) 교수 연구팀과 공동 수행한 연구 결과가 지난달 27일 에너지 분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됐다고 5일 밝혔다.

공동 연구진은 황을 배터리 양극 소재로 적용해 높은 에너지 저장 성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적용한 전고체 배터리 구조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폴리설파이드 용출이 발생하는 환경을 차단했고 약 1500mAh/g 수준의 용량과 안정적인 수명 성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해당 성능은 코인셀 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파우치 형태의 셀에서도 구현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가 실제 배터리 적용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했다.

/원관희 기자

## 포스코퓨처엠,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신설

베트남 북부 위치… 3570억 투자

장이 가능한 부지에 공장이 들어서며 추가수주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포스코퓨처엠이 해외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거점을 구축하며 글로벌 배터리 소재 공급망 확대에 나선다.

포스코퓨처엠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약 357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북부 산업도시 타이응웬에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8년부터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 약 5만5000톤까지 확

포스코퓨처엠은 현재 경북 포항에서 연산 8000톤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조업 경험을 통해 확보한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베트남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인 제품을 양산해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